

“김대중·노무현의 역사 온전한 통합으로 이끌겠다”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5> 안희정

안희정 충남지사는 패기가 넘쳤다. 인터뷰 내내 주저함이 없었고 소신과 자신감을 보였다.

안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혁과 관련해 개헌론자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를 헌법 때문이 아닌 운영 기술의 문제, 결국 사람의 문제로 돌려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친박패권주의’, ‘친노’ 또는 ‘친문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름 앞에 친, 반을 붙이는 낡은 정치는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파의 승리가 되면 안되며 모든 후보들은 자신의 정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론도 밝혔다.

그럼에도 친문패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당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같이 나서주었으면 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은 인정하되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온전한 통합으로 이끌겠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대담=박지경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 이번 대선의 의미는.

▲ 우선, ‘광화문 촛불’을 통해 국민은 정권교체를 명령했다. 다만, 분풀이 수단의 정권교체는 지양해야 한다. 각 정권의 시대적 합의를 잇는 연속성을 가진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세대교체다. 1987년 6.10항쟁, 청년학생운동의 주역이 지금의 50대 전후 장년세대다. 산업화의 주역이었으나 고령화 시대 노인빈곤에 처한 부모님 세대를 잘 모시고, 헬조선과 흡수저에 시달리는 다음세대를 깨우는 책임 있는 역할을 40, 50대가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활기가 되살아날 것이다. 또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 식민지·전쟁·분단·독재 등 20세기적 낡은 정치와 적폐를 청산하고 화합의 시대, 희망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 가야 한다.

- 호남만의 측면에서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오랜 호남의 한을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승화시키고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을 하나로 잇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이 김대중·노무현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저의 도전을 응원했으면 한다.

- 대선에 나설 것이었으면 지난 지방선거에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나는 도민에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성장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당선됐다. 대선에 나서는 것이 의무이다. 도지사 선거 당시 제1공약이 ‘도지사로서 경험과 실적을 쌓아서 더 크게 성장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대선 도전은 그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 안희정 지사는 합리적이고 예의바르고, 공격적이지 않아 친노이면서도 친노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대선행보를 하면서 일부 후보들에 대해 평소와 다르게 공격적으로 나와 문재인 전 대표의 약역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혁은 국민 논의·충분한 검증 필요

차기 정권서 시간 갖고 신중 논의

한국 정치는 결국 사람의 문제

이름 앞에 친·반 붙이는 정치 청산해야

▲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당정치를 바로 세우는 선거여야 해서 이 원칙을 벗어나는 정치인들의 언행에 대해 합리적 비판을 하는 것이다.

- 개혁에 관한 명확한 입장은.

▲ 개혁은 필요하다. 발전된 민주시민의 의식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 단 국민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 정당과 의회의 무능력·무기력·비민주성 극복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 다만 대선 문헌에 둔 현재의 개헌논의는 시가상 적절치 않다. 성급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차기 정권에서 시간을 갖고 신중히 논의될 문제다.

- 지나치게 원칙적인 얘기다. 개혁을 회피하는 논리라는 지적이 있다.

▲ 나는 개혁을 10년 전부터 주장해왔다. 나아말로 원래 개헌주의자다. 몇 달만에 개혁을 해지우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시기의 문제다. 국민의 논의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대통령 임기단축을 통해 2020년 통합선거를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 개헌 내용도 안 정해놓고 언제까지 하자는 것은 무리다. 똑똑한 학자들을 모아놓고 헌법을 만들자면 한 달이면 된다. 그런데 국민이 논의하고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래야 그 헌법이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가 된다.

-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가 있을 것 아닌가.



▲ 원래는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 원리에는 가장 이상적 제도다. 문제는 대화와 소통, 그에 의한 타협과 다수결제라는 민주주의를 완성해내는 일이 헌법을 골백번 바꾸고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헌법 때문이라고 들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본다. 정당정치의 허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민주주의 한다면 정당정치의 원칙조차 안 지키고 있다. 무원칙한 정당정치를 반복하면서 헌법을 개정하면 민주주의가 잘 실현된다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논리다.

- 집권하면 내각중심제로 국정 운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개헌하지 않고 가능한가?

▲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게 돼 있다. 그 의미는 국회의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총리를 낸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던져놓고 국회가 추인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총리가 장관을 추천하게 돼 있다. 이 장관들이 모여 국무회의를 한다. 이 헌법을 그대로 운영하지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헌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할 기술이 없는 것이다. 좋은 트랙터를 갖다 놓고 운전할 줄 몰라서 헛간에 놔두고 있는 격이다.

-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성공했다.

▲ 특권과 반칙과 싸운 노무현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평가와 후대의 평가가 다를 수 있고, 모든 정권이 다 그렇듯 실패와 성공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총리를 다수당에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나의 제안과 같은 맥락이다. 안희정식 방식과 노 전 대통령의 연정이든 본질은 ‘협치’와 ‘화합’이다.

- 공동경선, 공동정부 주장이 나오는데. 아권연대와 후보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나.

▲ 정당에서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서, 그 이후에 연대를 생각하는 것이 순서다. 개방형 공동경선은 정당정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 결선투표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조건이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이나 논란이 있다.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묻게 될 수 있다. 지금 논의를 바탕으로 개헌논의에 결선투표제를 포함해 개헌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영남지역주의와 호남지역주의는 같은 것인가. 차이가 있나.

▲ 호남 소외, 3당 아합으로 민주당이 호남에 고립되며 호남인이 정치사회적으로 받았던 그 압박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지역적 한을 갖고 싸우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비롯해 지역개발예정을 지방에 주려한다. 자치분권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소외받았다고 하는 지역발전 차별의 원천을 없애겠다.

- 정치권에서 뉴DJ가 거론되고 있는데?

▲ 대의명분 없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구태정치다. 이른바 제3지대론은 1990년 집권당이었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야당이던 김영삼

반기문 전 총장 외교관 능력 인정

정치 지도자로서 자질은 의문

명분없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안돼

제3지대론은 1990년 3당합당과 같아

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민주자유당을 출범한 3당합당과 같은 것이다.

- 호남발전의 비전은 뭐가 있을까.

▲ 애항심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론은 이제 중앙정치로 풀지 말고 지방자치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저는 대한민국을 자치분권의 국가로 만들 것이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결정하고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모두 쥐고 있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영남에 조금 더 주고 호남에 조금 더 주는 방식의 국가운영으로는 대한민국을 통합시켜낼 수 없다.

- 호남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지금 호남정신과 김대중 정신이 과거의 지역주의 정치로 갇혀나, 아니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과 지표로 승화되는냐의 기로에 서있다. 광주정신은 민주주의 정신이며, 김대중 정신은 국민 통합의 정신이다. 이 과업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 안희정이 이번 대선에 도전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온전한 통합으로 이끌겠다. 누구와 불타더라도 본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정권교체, 세대교체를 넘어서 20세기 낡은 지역주의, 박정희 시대의 질서를 완전히 과거로 만드는 시대교체를 하겠다. /jk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